



## 70년대 산업보건 주역들 항상 머리에 떠올라



이 승 권

대구한의대학교  
보건학부 교수

**나** 1973년 보건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해 9월 포항제철에 산업보건 전문요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이때 이미 나보다 1년 먼저 순천향대학에 재직 중인 박종안 교수님이 산업보건 전문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터였다. 이로써 포항제철(당시 박태준 사장)은 70년대 초부터 한발 앞서 산업보건관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우리 보건요원들은 포항제철의 1기설비가 일본에서 도입되었기 때문에 일본책(신 노동위생 핸드북)을 중심으로 보건관리를 해 나갔다. 이 과정에서 잘 모르는 것은 당시 우리나라 산업보건 전문기관인 서울 가톨릭산업의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자문 받기도 하고 참고자료를 얻어 선진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산업보건 전 분야의 업무를 추진해 나갔다. 그 예를 들어보면 당시 포항제철의 1기설비가 1973년 7월3일 준공된데 그 이전에 가톨릭산업의학연구소에 의뢰해서 준공된 설비 단위로 준공 전 작업환경을 측정을 실시하고 문제점을 찾아 대책을 강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종합공식을 갖고 전 설비가 가동되는 시점에서는 법적인 규제가 없었지만 우리는 책을 통하여 공장가동시의 작업환경 기초 조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공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측정을 실시해 보고서를 작성, 경영진에 보고하고 그 자료를 인사부서에서 급여지급에 필요한 직무분석 자료와 환경개선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당시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설비는 예산이 부족하고 기술 수준 또한 미약하기 때문에 생산에 필요한 설비중심으로 도입되었을 뿐 작업환경에 대하여는 미흡한 면이 많았다. 그래서 설비의 가동과 동시에 근로자들이 작업상 어려움을 호소함에 따라 경영진에서는 작업환경을 측정하여 보고도록 보건관리실에 지시하였고 그 결과를 근거로 신속히 작업환경개선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하나의 예가 코크스오븐에 있는 Guide car와 Pushing car에 냉방설

비가 없어 여름철에 온도가 높아 근로자들이 작업할 수 없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즉시 냉방설비를 설치하는 개선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동시에 크레인을 포함한 고열(서열)과 관계있는 관련 전 설비에 대하여 고열측정을 하고 결과를 근거로 전사적인 고열작업장 종합대책(환경개선사업과 함께 얼음비치, 고열작업장 근로자들에게 종합비타민제를 지급하는 등의 조치)을 강구함으로써 조업을 순조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후 조업이 안정기를 맞이함에 따라 회사(인사부서)에서는 신일본제철소의 3조3교대(역교대) 근무제도를 도입한 후 근로자들에게 맞는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교대근무제도에 관한 연구”와 “피로도에 관한 연구”를 서울 가톨릭산업의학연구소에 용역 의뢰하여 실시하게 되었는데 이때 연구에 참여한 이태준, 윤임중, 이광목, 정치경, 박정일, 이세훈 교수님이 좋은 연구결과를 제출하여 보건관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당시 연구결과 중 기억에 남는 것은 교대근무의 주기는 짧은 것이 좋고 교대근무 방식은 역교대 보다 정교대가 좋다는 것이었다. 이 결과는 당시에 적용되지 못하였으나 최근에는 역교대를 정교대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런 연구결과와 성과 이외에도 여러 교수님들이 열과 성을 다하는 모습에서 참 산업보건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지금 이 글을 쓰는 필자는 과거 26년간 일선에서 근로자들의 건강유지·증진과 산업보건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으며 현재는 후학을 육성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젊은 시절에 업무수행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우리나라 산업보건 발전의 초석이 된 가톨릭의대 예방의학연구진들의 모습이 나의 머리를 스쳐 가곤 한다. 이미 고인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항상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들이기도 하다. 지금은 정말 많이 발전하였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되었고 산업의학이나 산업위생부문의 전문가들이 많아 자문 받기도 쉬워졌다. 또한 측정기술의 발전, 정보망의 획기적인 발전으로 필요한 자료를 쉽게 접할 수도 있게 되었다. 우리는 과거 법적인 규제도 없고 인력과 장비도 부족했던 시절 자발적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전해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최선을 다해 현장을 누비면서 측정, 개선하고 교육하였으며 전염병과 집단식중독 예방을 위해 노력한 일들, 그리고 제철소 직원들에게 전사적인 금연활동으로 근로자들의 건강유지·증진에 앞장 섰던 일들을 나는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지금 사업장에서 보건관리를 하는 여러분들도 근로자들의 건강이 곧 생산성이고 국제경쟁력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바른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하여 자신의 보람된 삶을 열어 가기 바란다.